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0월 4주 ~ 10월 5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폴란드 경제 동향

○ 폴란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 기록, 교통비·주거비 상승세 확대(10.14)

- 통계청(GUS)은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1%, 전월 대비 0.7%를 기록했다고 발표,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8월 3.4%에서 9월 4.1%로 확대됨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은 교통비와 주거·에너지 비용으로, 교통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7.9%, 주거·수도·전기 등 관련 비용은 5.1%, 주류·담배 가격은 6.9% 상승
- 특히 교통 부문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1.78%p로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으며, 주거·에너지 비용의 기여도는 1.04%p로 집계됨
- 폴란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를 넘어선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

○ 폴란드의 對우크라이나 상품무역 흑자, 사상 최대 97억 유로 기록, EU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중 폴란드 비중 29.5%(10.19)

- 2026년 5월까지 12개월 누계 기준 폴란드의 대우크라이나 상품무역 흑자는 약 97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2020년 말 약 27억 유로에서 크게 증가
- 같은 기간 폴란드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액은 약 52억 유로에서 141억 유로로 약 169% 증가한 반면, 우크라이나산 상품의 폴란드 수입액은 약 25억 유로에서 44억 유로로 약 72% 늘어나는 데 그쳐,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확대됨
- 폴란드는 EU 전체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22.7%에서 2026년 5월 29.5%로 확대하며 회원국 중 1위를

유지, 독일이 18.5%로 뒤를 이었으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함

2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세계은행, 우크라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 4%에서 1.5%로 하향(10.8)

- 세계은행은 2027년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을 반영해 우크라의 2027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4%에서 1.5%로 하향했으며, 2026년 성장률은 1.2%로 전망함

○ 우 중앙은행(NBU), 9월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회, 연료·식품·서비스 가격 상승(10.15)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2026년 9월 물가상승률이 7월 인플레이션 보고서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
-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전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러시아의 생산·저장·물류 인프라 공격과 연료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품목별로는 연료 가격이 전년 대비 46.2% 상승해 물가 부담을 키웠으며, 가공식품은 10.7%, 서비스는 1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교통 요금과 수도요금 등 행정관리 가격도 전년 대비 13.6% 상승하였으며, NBU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과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 상승, 저장·물류시설 피해 등으로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우크라이나 M&A 시장, 2026년 1~9월 거래액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방산·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10.20)

- KPMG의 「M&A Radar 9m 2026: Ukraine」에 따르면, 2026년 1~9월 우크라이나 M&A 공개 거래액은 2,13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03백만 달러 대비 약 94% 증가함
- 최대 거래는 글로벌 산업기업 TCC Group Holdings의 우크라이나 시멘트 기업 IFCEM Group 지분 100% 인수 계획으로, 기업가치는 최대 750백만 유로로 평가

- 또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확대, 외국 기업·투자자의 우크라이나 관련 거래는 전년 동기 8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으며, 공개 거래액은 41백 달러에서 1,275백만 달러로 확대됨
- 기술·농업·에너지·방산 분야가 주요 투자처로 부상, 기술 분야는 14건으로 거래 건수 기준 가장 활발하며, 농업 분야는 8건의 거래에서 공개 거래액 428백만 달러를 기록함
-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확보가 주요 투자 동력으로 작용, 통신기업 Kyivstar는 르비우 지역 태양광 발전소 6곳을 80.8백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Swarmer의 Ratel Robotics 인수 외에도 미국 Axon Enterprise의 Buntar Aerospace 투자(10.4백만 달러), Farsight Vision의 시드 투자 유치(8.6백만 달러) 등이 진행

○ 우크라이나, 전쟁 국채 수요 호조에 발행금리 인하(10.22)

-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10월 20일 국내 국채 입찰을 통해 총 2,030백만 흐리우냐를 조달, 투자 수요가 공급 물량을 크게 웃돌면서 전주 대비 두 종류 국채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모두 인하
- 2027년 9월 만기 1년물 국채는 1,016백만 흐리우냐가 조달됐으며, 응찰 규모는 공급 물량의 5배를 초과, 2029년 3월 만기 국채도 1,014백만 흐리우냐가 조달됐고, 응찰 규모는 공급량의 3.4배에 달했으며 수익률은 7bp 하락한 연 16.38%로 집계됨
- 두 국채 모두 투자자들의 응찰액이 공급 물량을 크게 상회해 정부가 더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하였으며, 이번 수요 호조를 통해 우크라 정부는 조달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함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일본계 물류기업 Frigo Logistics, 폴란드 라돔스코 냉동창고 태양광 설비 증설(10.9)

- 510kWp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 구축해 기존 설비(835kWp)를 포함한 총 발전용량을 1,345kWp로 확대했으며, 신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냉동창고의 연간 전력 수요 약 35%를 충당할 계획

○ **그디니아항, 12년간 추진한 항로·항만 수역 준설사업 완료(10.8)**

- 폴 그디니아항만공사(PGA)는 접근 항로를 수심 17m, 내부 항로를 16m로 준설하고 선회장을 직경 480m로 확장하는 등 주요 부두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완료해 발트해에 진입 가능한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수용 기반을 확보

○ **Orlen Termika, Pruszków 열병합발전소 바이오매스 보일러 설치 완료(10.9)**

- ORLEN Termika는 프루슈쿠프 열병합발전소의 신규 바이오매스 설비에 보일러 3기와 주요 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7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함

- 폴 환경보호·수자원관리기금(NFOŚiGW)의 'Energia Plus' 프로그램을 통한 144백만 즈워티 지원이 포함되며, 설비 가동 후 석탄 보일러 2기를 폐쇄해 전력·열 생산의 CO_2 배출량을 2024년 MWh당 368kg에서 2029년 147kg으로 약 60% 감축할 계획임

○ **Alstom, 폴 CLIP 인터모달에 다중 시스템 기관차 18대 인도 완료(10.12)**

- Alstom은 폴란드 물류기업 CLIP 인터모달에 최고 시속 160km의 3세대 Traxx Universal 다중 시스템 기관차 18대를 인도

○ **폴 Jaworzno 전기차 생산거점 채용 개시, 폭스콘 합작공장 2027년 착공·2029년 생산 목표(10.10)**

- 폴 전기차 사업 추진기업 ElectroMobility Poland는 대만 혼하이 테크놀로지 그룹(폭스콘)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계약을 수주 내 체결할 예정이며, 폭스콘 계열 폭스트론의 기술을 도입해 2027년 봄 야보주노 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2029년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 생산·자재계획, 구매, IT 지원, 운영 효율화 및 물류 분야 인력 채용이 시작됐으며, 환경보호·수자원관리기금(NFOŚiGW)은 국가재건계획(KPO) 재원 약 45억 즈워티를 투입해 생산시설과 부품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폴란드 및 유럽연합 기업의 자동차 공급망 참여를 지원할 예정임

○ **Synthos Green Energy·ZE PAK, Pątnów 지역에 SMR 최대 6기**

건설 추진(10.13)

- 폴 Synthos Green Energy(SGE)와 에너지기업 ZE PAK은 Pątnów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 협약을 체결했으며, GE Vernova Hitachi의 BWRX-300 원자로 최대 6기, 총 약 1,800MW 규모의 발전설비 구축을 계획
- 양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할 예정이며, ZE PAK은 사업 부지에 대한 권리를 출자하고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
- 사업 대상지는 현재 ZE PAK이 소유한 갈탄화력발전소 부지로, 기존 송전망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내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입지상 장점으로 제시됨

○ PEJ·PGE, 제2 원전 건설사업 협력협약 체결(10.13)

- 폴란드 원전 사업자인 폴란드 원자력발전소(PEJ)와 국영 에너지기업 PGE는 에너지부와 함께 제2 원전 건설사업의 업무 분담 및 협력 원칙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고, 폴란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PNPP)에 따른 사업 준비를 추진
- PEJ는 사업 투자자이자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사업 준비와 추진을 담당하며, PGE는 잠재적 원자로 기술 공급사와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후보 입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
- 제2 원전 후보지로는 PGE가 운영하는 베우하투프(Bełchatów) 갈탄화력발전소 부지와 코닌(Konin)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종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폴란드 정부는 2027년까지 제2 원전의 전략·기술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미국 Westinghouse, 프랑스 EDF, 캐나다 AtkinsRéalis 등이 참여하는 경쟁대화 절차를 진행 중. 건설은 2032년 착공, 최초 원자로는 204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 폴란드, 재생에너지법 개정 통해 바이오메탄 투자 확대 추진(10.13)

- 폴란드 재생에너지법(RES Act) 개정안이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설비용량 1MW 초과 바이오메탄 생산시설에 대해

20년간 차액정산계약(CfD) 방식의 지원을 도입할 예정

- 개정안은 경매 참여 사업자의 최소 에너지 공급 의무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춰 공급량 미달에 따른 과징금 부담과 투자 위험을 완화할 계획

○ 에너지규제청, 열병합발전 지원 경매 통해 6개 사업자에 538백만 즈워티 지원(10.12)

- 폴란드 에너지규제청(URE)은 2026년 제4차 열병합발전 지원 경매(9.22~24일)를 실시해 총 6개 사업자의 입찰을 선정했으며, 총 53백만 즈워티 이상을 2027~2045년 지급할 예정
- 선정 사업자는 코샬린시 열에너지공사(Municipal Heat Energy), Orlen Termika Silesia, RCEkoenergia, Veolia Mała Kogeneracja 3, Veolia Mała Kogeneracja Warszawa 1, Veolia Wschód 등으로, 고효율 열병합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은 총 2.54TWh로 예상
- 낙찰된 지원금은 판매 전력에 지급되는 열병합발전 프리미엄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단가는 MWh당 최소 189.50즈워티에서 최대 234.99즈워티, 해당 경매는 설비용량 1MW 이상 50MW 미만의 신규 또는 대규모 현대화 열병합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함

○ 폴란드 Tauron, Jaworzno 지역에 3억 즈워티 규모 차세대 열원 설비 구축 추진(10.13)

- 폴 에너지기업 Tauron Wytwarzanie는 Jaworzno 지역의 열 공급 기반 현대화를 위해 산업설비 기업 AB Industry와 총 3억 즈워티 규모의 열원 설비 구축 계약을 체결했으며,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신규 설비는 가스·유류 보일러 5기, 전극 보일러 2기, 가스 열병합발전 설비 및 400MWh 규모 열에너지 저장장치로 구성, 전력으로 열을 생산하는 P2H(Power-to-Heat) 기술과 열저장 기능을 결합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열 생산 조절 및 잉여전력 활용 도모

○ 미국 Inteva Products, 독일 일부 생산을 폴란드 오폴레로 이전(10.12)

- 미국 자동차 부품기업 Inteva Products는 독일 플라틀링(Plattling) 공장의 생산을 폴란드 오폴레(Opole) 공장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현지 고용 규모를 기존 550명에서 약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
- Inteva Group은 2025년 12월 IAC Group의 오폴레 공장을 인수해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했으며, 해당 공장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최신 모델용 필러 및 휠 아치 부품 생산 중으로, 2028년부터는 폭스바겐의 전기차량 전면 패널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

○ 폴란드, 580km S11 고속도로 건설 추진, 환경 인허가 및 이의제기로 사업 지연(10.12)

- 폴란드 국가도로청 GDDKiA은 남부 실롱스크주 피에카리실롱스키에(Piekary Śląskie)에서 북부 발트해 연안 인근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약 580km의 S11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인구 2백만 명 이상인 상부실롱스크·자그웽비에 대도시권과 발트해 서부 연안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 기능할 전망
- 현재 전체 노선 중 162km 이상이 개통, 126km는 공사 중, 78km는 입찰 절차 진행 중이며, 나머지 211km는 사업 준비 단계에 있음
- 서포모제에서는 보보리체(Bobolice)~슈체치네크(Szczecinek) 구간 24km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2026년 11~12월 개통이 예상됨

○ 폴란드 건설사 바르부드(Warbud), 바르샤바 신포니아 바르소비아(Sinfonia Varsovia) 신축 공연장 건설 계약 체결, 사업비 약 651백만 즈워티(10.12)

- 폴란드 문화기관 신포니아 바르소비아는 건설사 바르부드와 바르샤바 프라가(Praga) 지역 내 신규 본부 건설 계약을 체결, 총사업비는 약 651백만 즈워티이며, 바르샤바시와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
- 이번 사업의 핵심은 1,877석 규모의 폴란드 최대 콘서트홀 건설로, 약 400석 규모의 실내악 공연장과 예술인 지원시설, 리허설실, 녹음 스튜디오 등도 함께 조성할 계획. 또한 공공정원과 길이 400m의 공중 산책로를 설치해 시민 이용 공간을 확대할 예정

○ **DHL, 2030년까지 중동부 유럽에 4억 유로 이상 투자, 폴란드 물류 인프라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10.11)**

- DHL 그룹은 2030년까지 폴란드·체코·헝가리·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에 4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 대상은 물류 인프라, 국제 운송망, 창고·유통시설 및 공급망 관리 기술 등으로, 역내 경제성장과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표로 함
- 폴란드는 DHL의 역내 투자 전략에서 핵심 시장으로, 2024년에는 포즈난 인근에 180백만 유로 규모의 국제물류센터를 개설, 향후 카토비체에 DHL Express 항공터미널을 신설할 예정

○ **폴란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규모 8월 말 1.6TWh 돌파, 태양광 확대에 따른 전력망 유연성 확보 과제 부상(10.14)**

-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규모가 2026년 8월 말 누적 1.6TWh를 초과하며 전년도 연간 기록을 갱신, 2026년 1~7월 출력제한량은 1,425.8GWh로 2025년 연간 1,378.7GWh를 상회했으며, 8월에만 184.9GWh가 추가로 제한됨
- 8월 출력제한량은 태양광 155.1GWh, 풍력 29.8GWh였으며, 맑은 날 정오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저장 및 수출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Grupa Azoty, Police 화학공장 최대 800명 임금 인상 합의(10.14)**

- 노동조합과 그루파 아조티(Grupa Azoty) 간 합의에 따라 폴리체 화학공장 직원 최대 800명의 임금이 인상될 예정
-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예산 3백만 즈워티가 배정됐으며, 공장 직원의 약 절반이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300즈워티를 더 받게 될 전망임
-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장 내 임금 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일부 직원도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인상된 임금은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차액과 함께 지급될 예정임

○ **폴란드 Allegro, 우크라이나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시범사업 개시(10.14)**

- 폴란드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Allegro가 우크라이나 수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지 소비자에게 1백만 개 이상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임
- 약 12백만 명의 우크라 온라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폴란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 물류는 폴란드 내 알레그로 원 쿠리어(Allegro One Kurier)와 우크라이나의 노바 포스트(Nova Post)가 담당하며, 양사의 배송망을 통해 4,000개 이상의 지점과 34,000개 이상의 택배 보관함을 활용할 계획
- 알레그로는 이미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3개 시장에서 약 6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 폴 청정대기 프로그램 보조금 신청에 바이오매스 보일러 수요 우세(10.15)

- 폴란드 청정대기(Clean Air) 프로그램의 2026년 보조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보일러가 전체 신청의 76~8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 히트펌프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3월 23%까지 상승한 뒤 4월에는 20%로 하락
- 실제 난방비 측면에서는 히트펌프가 유리함에도 보조금 신청에서는 바이오매스 보일러가 우세한 양상을 보임

○ Elektrotim, PGE 계열사와 1,570만 즈워티 규모 철도 전력 인프라 현대화 계약 체결(10.15)

- Elektrotim은 2026년 10월 15일 PGE Energetyka Kolejowa Operator와 폴란드 쇼피에니체(Szopienice) 지역의 20kV 철도 견인변전소 및 관련 기술 인프라 현대화 계약을 체결.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추진되며, 계약 금액은 1,570만 즈워티, 준공 기한은 2029년 8월로 예상

○ PORR, 브로츠와프 공항 내 미군 군수·수송기 지원기지 1단계 건설 계약 체결(10.15)

- 오스트리아 건설기업 PORR은 폴란드 Wrocław-Strachowice 공항 내 미군 군수·화물 처리 및 적재 기지 건설 1단계 사업을 수주하고, 지역 인프라청과 약 539백만 즈워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사업은 폴란드와 미국 간 방위협력협정(EDCA)에 따라 추진되는 미군 군수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

- 공항 인프라 인증 및 미군 항공기 수용 준비를 포함한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2029년으로, 폴란드 내 미군 군수기지 4곳 중 하나를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미군의 유럽 내 군수·수송 역량 강화와 폴란드의 전략적 군사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Mirbud, 창사 이래 첫 대형 철도공사 수주(10.15)**

- 폴란드 건설기업 Mirbud 그룹은 자회사 Transkol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철도 8호선 시트쿠프카 노비니(Sitkówka Nowiny)~미아소바(Miąsowa) 구간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고, 2026년 9월 14일 계약을 체결, 계약금액은 4,350만 즈워티으로, Mirbud 그룹이 체결한 최초의 대형 철도공사 계약임

○ **PGE·NASK, 폴란드 내 데이터센터 공동 투자 및 구축 추진(10.16)**

- 폴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PGE와 국가 연구기관 NASK는 폴 내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 소포트(Sopot)에서 열린 유럽 신사업 포럼(EFNI)에서 디지털부 및 국가자산부 장관이 관련 계획을 발표
- 폴 국유자산부는 데이터센터 입지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복수의 후보지가 사전 검토된 상태이나 구체적인 입지와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음
-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PGE가 관리하는 열병합 발전 시설 및 지역난방망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됨

○ **쉬인(SHEIN), 폴란드 브로츠와프 인근 물류센터 확장으로 2026년 3,000명 이상 신규 고용 및 추가 채용 추진(10.16)**

- 중국계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인근 유럽 물류센터 확장을 통해 2026년에만 3,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향후 수천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 EU가 2026년 7월 1일부터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쉬인·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개별 소포 배송 중심에서 현지 대형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물류 전략을 전환하는 추세

○ **폴 최고감사원(NIK), 자국 최초 원전 건설사업 감사 결과 발표, 사업관리 미흡 및 정부 인사 교체 문제 지적(10.16)**

- 폴란드 최고감사원(NIK)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폴란드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부 당국 및 폴란드원자력발전공사(PEJ)의 업무 수행을 감사한 결과, 사업 관리·인력 운영·계약 협상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 지적, 다만 확인된 위반 사항은 NIK의 기준상 재정적으로 중대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특히 PEJ의 인력 운용 전략 및 계약 관리가 미흡했으며, 2024년 6월 말 기준 직원 수는 430명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원전 건설 준비 단계의 예상 인력 규모보다 약 2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국 Westinghouse와 Bechtel을 기술 공급자 및 건설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생략한 결과, 폴란드 측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계약상 재정·사업 위험이 폴란드 측에 집중됐다고 평가

○ **폴란드 Gaj Oławski, 447백만 즈워티 규모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 추진(10.15)**

- 폴란드 돌니실롱스크주 가이 오와프스키에 약 447백만 즈워티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및 에너지저장 복합단지가 조성 중이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사업은 ELQ SA가 수행하며, 풍력·태양광 발전과 수소 생산 및 대규모 에너지저장 설비를 통합하는 것이 특징
- 핵심 시설은 설비용량 21MW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로, 연간 170만kg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저장용량 35MWh 규모의 중력식 에너지저장시설도 구축할 예정

○ **Orlen, 2035년까지 3,800억 즈워티 투자 추진에 앞서 건설업계와 계약·입찰 기준 개선 논의 착수(10.19)**

- Orlen은 2035년까지 가스 생산 확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4곳 건설,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 및 소형 원전 최소 2기 건설 등에 약 3,800억 즈워티를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폴란드 기업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 폴란드건설고용주협회(PZPB)는 Orlen 그룹 내 계열사별로 입찰·계약 운영 기준이 상이해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계약 분쟁과 시공업체의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
- 이에 PZPB와 Orlen은 실무 협의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실적 요건 및 평가 기준 표준화 ▲산업안전보건 기준 통일 ▲추가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 등 3개 분야를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대금 정산, 계약 금액 물가연동, 계약상 벌칙 및 당사자 책임 배분 등으로 협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

○ **카토비체 공항, 130백만 즈워티 투입해 철도 연계 복합 화물·항공유 환적 허브 구축, 민·군 겸용 물류 인프라 확충 추진(10.17)**

- 폴란드 상부실레지아 항공그룹(GTL)이 소유한 카토비체 공항은 2024년 9월 착공한 철도 연계 복합 화물·항공유 환적 허브를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0백만 즈워티로 책정
- 총사업비 중 적격 비용의 최대 50%(최대 1,009만 유로)는 EU의 「Connecting Europe Facility(CEF) 2021~2027」 Military Mo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며, 사업은 폴란드 건설사 Mostostal Kraków와 Budimex 컨소시엄이 수행

○ **PGB, Osmola 농업용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10.16)**

- 폴 재생에너지 기업 Polska Grupa Biogazowa(PGB)는 건설사 Unibep과 포들라스키에주 시에미아티체군 오스몰라(Osmola)에 농업용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약 30백만 즈워티이며, 2027년 3분기 가동 및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
- 이번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술·상세 설계부터 건설 및 설비 설치, 시운전, 운영 인계까지 Unibep이 총괄 수행, 완공 시 PGB의 포들라스키에주 내 다섯 번째 바이오가스 설비가 되며, 회사 전체 발전용량은 최대 25MW로 확대될 전망

○ **폴란드, 유럽 남북 연결축 Via Carpatia 건설 추진 중이나 국가별 공정 격차 심화, 슬로바키아 구간 지연으로 국경 간 고속도로 연결**

차질 우려(10.16)

- 폴란드 최고감사원(NIK)은 2018~2025년 Via Carpatia 폴란드 구간의 추진 현황과 참여국별 사업 진척도를 점검한 보고서를 발표
- Via Carpatia는 발트해 인근 북유럽에서 남유럽을 연결하는 7개국 경유 국제 도로망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각국 구간을 범유럽 교통망(TEN-T)에 포함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으나, 국가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차이로 건설 속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
- 국가별로 헝가리는 약 240km 구간을 2021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수준으로 완공했으며, 그리스도 관련 도로 구간을 2010년 완공
- 폴란드 측은 포드카르파츠키에주 S19 고속도로를 Via Carpatia의 핵심 구간으로 건설 중이며, 두클라(Dukla)~바르비네크(Barwinek) 국경 구간은 2027년, 해당 지역의 S19 전체 사업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 루마니아는 2023년 기준 전체 노선의 약 35%가 완공된 것으로 집계, 불가리아는 사업이 독립적인 도로 투자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슬로바키아는 재정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40~205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제시

○ 폴 최대 은행 PKO Bank Polski, 우크라이나 은행 인수 검토(10.19)

- 폴란드 최대 은행 PKO Bank Polski는 우크라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국영 또는 민간 은행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
- 현지 자회사 Kredobank가 주로 우크라이나 서부 및 키이우를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가운데, 오데사·하르키우·폴타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전국 단위 은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
- 실제 인수 성사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시 상황 중 국영은행 매각 의향과 민간 은행 주주들의 자산 매각 결정에 좌우될 전망임

○ 폴란드 Łódź, 폐열병합발전소 굴뚝 철거 완료, 약 10억 즈워티 규모 도심 재개발 추진(10.20)

- 폴란드 우치시의 옛 EC-2 열병합발전소 부지에서 높이 120~160m

규모의 대형 굴뚝 3기가 폭약을 이용해 철거됨

- 이번 철거는 장기간 준비된 도심 산업유휴부지 재개발 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조치로 평가, 개발사업자인 JHM Development는 20ha 이상의 옛 발전소 부지에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상업·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0억 즈워티로 추산, 초기 건설공사는 2027년 착수 예정

○ 폴란드 Grupa Azoty 노조,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하며 본사 앞 항의 집회 개최(10.20)

- 폴란드 최대 비료·화학기업 Grupa Azoty의 노동조합은 10월 20일 Tarnów 본사 앞에서 약 300~400명이 참여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교대근무 수당 및 근속수당 개선 등을 요구, 노조는 경영진과의 단체교섭 분쟁이 약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없다고 비판
- Grupa Azoty 경영진은 전임 경영진의 투자 결정에 따른 부채와 높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비료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그룹 전체의 연간 비용이 5억 즈워티를 초과해 전면적인 수용은 어렵다고 설명
- 다만 노사 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며, 분쟁 대상 5개 계열사 중 Police와 Siarkopol에서는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져 시행 중

○ 폴란드 PSE·리투아니아 Litgrid, 700MW급 Harmony Link 전력연계선 접속 협정 체결(10.21)

- 폴란드 전력망 운영사 PSE와 리투아니아 송전망 운영사 Litgrid는 양국을 연결하는 700MW급 Harmony Link 전력연계선의 접속 지점 및 기술적·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
- Harmony Link는 리투아니아 Vilkaviškis 지역의 Gižai 변전소와 폴란드 Ełk Bis 변전소를 연결하는 총연장 238km의 복합형 교류 송전선으로 건설될 예정

○ 폴란드 PSE, 기후환경부와 315.6백만 즈워티 규모 송전변전소 현대화 지원 협약 체결(10.15)

- 폴란드 송전망 운영사 PSE는 기후환경부(MKiŚ)와 총 3억 1,560만 즈워티 규모의 보조금 지원 협약을 체결, 지원 재원은 EU 기금이 투입되는 FEnIKS 2021~2027 프로그램으로 관련 사업의 총투자비는 약 813백만 즈워티로 추산
- 지원금은 폴란드 5개 변전소(Boguszów, Zamość, Zamość, Świebodzice, Gdańsk Przyjaźń)의 설비 확충 및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으로, 주요 사업에는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원격 제어·감시 체계 구축, 신규 전력원 계통 연계가 포함되며, 일부 변전소에는 자동변압기도 추가 설치될 계획

○ **Elektrotim, PGE Energia Odnawialna의 에너지저장시설 설비 공급 입찰에서 312.9백만 즈워티 규모 우선협상 대상 선정(10.21)**

- 폴 전기설비·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Elektrotim은 국영 에너지기업 PGE의 재생에너지 자회사 PGE Energia Odnawialna가 발주한 에너지저장시설 관련 설비 공급 입찰에서 총 312.9백만 즈워티 규모의 자사 제안이 최우수 입찰로 선정됐다고 발표, 계약 금액은 254.4백만 즈워티

○ **PGE, 전국 22개 에너지저장시설 건설 입찰 추진, 11.16 입찰 마감(10.19)**

- 폴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PGE의 재생에너지 자회사 PGE Energia Odnawialna는 PGE Inwest 21을 위해 전국 22개 에너지저장시설 건설사업 입찰을 공고
- 대상 시설은 Wydminy, Łuków, Piaseczno, Lublin, Rzeszów, Białystok, Chełm 등 폴란드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될 예정

○ **Tauron, 120MWh급 Jawor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설 인수(10.21)**

- 폴 에너지기업 Tauron은 Jawor에 건설 예정인 출력 28.27MW·저장용량 120MW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설(BESS) 프로젝트를 인수
- 이번 거래는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특수목적법인 인수를 포함하며, 시설은 Wałbrzych Special Economic Zone Invest-Park 내에 건설될 예정으로, 시설은 총 40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되며, Jawor Strefa 110/20kV 변전소를 통해 Tauron Dystrybucja의 배전망에 연결될 계획

- 2029~2045년 용량시장 계약을 확보했으며, 계약 보수는 연간 kW당 264.9즈워티로 책정됨

○ **폴 환경보호·수자원관리기금(NFOŚiGW),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보조금 10억 즈워티 지원 프로그램 개시(10.20)**

- 폴 환경보호·수자원관리기금(NFOŚiGW)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총 10억 즈워티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시작
-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을 재원으로 하며, 계통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설비 보유자를 대상으로 자가소비율 제고와 전력망 의존도 완화를 지원

○ **폴란드 재생에너지 기업 Onde, 약 47.7백만 즈워티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착수(10.21)**

- 해당 풍력발전단지의 구체적인 건설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폴란드 내 사업으로 확인, 공사 기간은 기존 계획상 2026~2028년으로 예정

○ **폴란드 Orlen·Synthos Green Energy,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협력 기본협약 체결(10.22)**

- 폴 국영 에너지기업 Orlen과 Sołowow 소유의 Synthos 계열사 Synthos Green Energy(SGE)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의 향후 협력 원칙을 규정하는 포괄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은 수개월간 지속된 양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폴란드 내 GE히타치의 BWRX-300 원자로 도입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브워츠와베크(Włocławek) 원전 사업은 Orlen이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이 단계별로 추진하며, Orlen은 주도 투자자로서 사업 이행을 총괄하고 BWRX-300 원자로 기술에 대한 직접 라이선스 권리를 확보할 예정
- 양사는 향후 원전 부지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폴 국가원자력청(PAA)에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미국 원자력기업 BWX Technologies, 폴란드 포모제주에 최대**

15억 달러 규모 원자력 산업 투자 검토(10.22)

- 미국 원자력기업 BWX Technologies(BWXT)가 폴 북부 Pomerania 지역의 'Kaszubia 그린 산업지구'에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 미 해군 잠수함용 원자로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인 BWXT는 10월 22일 바르샤바에서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측과 면담할 예정
- 투자 검토 대상 시설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부품과 핵연료 및 첨단 원자력 기술을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됨
- BWXT는 캐나다 Darlington 원전용 BWRX-300 원자로 압력용기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폴란드 내 Orlen·Synthos Green Energy의 BWRX-300 도입 사업과 관련한 공급망 참여 가능성도 주목됨

○ 폴란드 도로총국(GDDKiA), 비아위스토크 인근 S19 고속도로 10.2km 구간 개통(10.21)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우크라 키이우주, 473.7백만 흐리우냐 규모 투자 예정 산업단지 등록(10.12)

- 우크라 정부는 키이우주 보리스필 지역에 10.96헥타르 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MORE'를 등록, 개발 주체인 Terra Bud Development는 식음료 생산, 기계·장비 제조, 금속 가공제품, 점토 기반 건축자재 및 대체에너지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해 약 473.7백만 흐리우냐 투자와 최대 50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함

○ 트럼프, 러시아·우크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발표, 젤렌스키는 사전 통보 부재 지적(10.12)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해당 발표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도 상호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수용할 준비가 있다고 강조

- 젤렌스키 대통령은 별도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0일간의 전면 휴전에 동의하면 안전한 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우크라이나 대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에너지 휴전의 실제 발효 여부와 시점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

○ 러시아, 에너지 휴전 협상서 대러 제재 완화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전 휴전 추진(10.12)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 중단 협상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흑해 휴전과의 연계 및 동결된 러시아 국가자산 해제 등을 요구 조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에너지 전력망과 곡물 부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추진하며 러시아 자산 동결 해제, 루코일 지분 매각 허용, 벨라루스산 칼륨비료 수출 허용 등의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 우크라는 합의 위반 시 대응을 보장할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협상 재개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힘

○ EU,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900억 유로 대출 지원계획 보완 추진, 추가 재원 확보 난항(10.12)

- EU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만으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2027년 부족 재원 700억 유로의 지원을 동맹국에 요청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같은 해 450억 유로의 지원을 배정한 상태임

- 미국의 지원 부재와 유럽 각국의 재정 부담,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에 대한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의 반대 및 높은 차입 비용으로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EU는 영국·캐나다·일본 등 G7 국가에 분담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입장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IMF 종합 검토 완료에 따라 외환 규제 추가 완화 추진(10.13)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의 외환 규제 자유화 조치에 대한 종합 검토 완료를 확인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외환시장 여건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외환 규제를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할 계획
- NBU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 수준으로 외환 규제 체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4건의 조치를 도입해 이 중 144건은 규제 완화, 10건은 규제 우회 방지에 활용. 외환 자유화 본격 추진은 2024년 5월 시작
-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차입 및 일부 외환 거래가 허용 한도 내에서 확대됐으며, 인센티브 기반 자유화 제도에 따른 거래 규모는 총 10억 5,400만 달러, 추가 이용 가능 한도는 8억 7,500만 달러로 집계
- NBU는 해당 조치가 외환시장에 유의미한 추가 수요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관련 거래는 전체 외화 매입의 약 4%, 해외 송금의 약 6%를 차지. 향후 추가 규제 완화는 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과 금융안정성 유지 여부를 고려해 추진할 방침

○ 우크라이나, EU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펀드 제도 개편 추진(10.13)

- 우크라 국가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는 의회 재정위원회 및 세계은행과 함께 투자펀드 시장 개편 법안을 마련해 의회 등록 절차에 회부했으며, 집합투자 제도를 EU 기준에 맞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
- 법안은 펀드 운영·자산운용·평가·정보공개 기준을 현대화하고, 투자펀드를 공모 투자펀드(UCITS 기준 적용)와 대체투자펀드(AIF)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수탁기관의 자산 보관 및 기록 관리 의무도 도입할 예정
- 이번 개편은 우크라이나의 EU 통합 추진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권고 이행의 일환으로, 법안 채택과 경과기간 종료 및 제도 시행을 거쳐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와 국경 간 투자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 에너지 부문, 러시아의 4년간 공격으로 발전능력 감소, 복구

비용 약 910억 달러 추산(10.13)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쟁 전 약 38GW였던 우크라이나의 가용 조정가능 발전용량은 전쟁 첫해 점령·피해·파괴 등으로 19GW 감소, 2024년 추가 공격 이후 약 12GW까지 축소되었으며 설비용량 6GW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도 러시아 점령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우크라 정부·세계은행·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엔이 2026년 2월 발표한 제5차 피해·복구 수요평가(RDNA5)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에너지 부문 복구·재건 비용은 약 9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우크라 전체 재건 수요 약 5,880억 달러의 약 6분의 1로, 평가 대상 피해 에너지 시설 수도 이전 조사보다 약 21% 증가

○ EBRD·EU·Aon, 우크라이나 전쟁위험 보험 지원 한도 150백만 유로로 확대, 보장 대상도 확대(10.13)

- EBRD은 보험중개·위험관리 기업 Aon과 공동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보증기구(URGF)의 지원 한도를 기존 110백만 유로에서 150백만 유로로 확대, 기존 한도가 전액 소진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기업의 전쟁위험 보험 가입 및 보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EU의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Ukraine Investment Framework)를 통한 보증 지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며, 기존 참여 보험사인 INGO·Colonnade·UNIQA에 더해 USG(오스트리아 Vienna Insurance Group 소유)와 Universalna(캐나다 Fairfax Financial Group 소유) 등 2개 보험사가 새롭게 참여
- URGF는 EBRD가 글로벌 재보험사 MS Amlin의 전쟁위험 관련 손실을 보증하고, 참여 우크라이나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확보해 기업 대상 보험 공급을 확대하는 구조로, 기존 110백만 유로 보증은 프랑스·노르웨이·스위스·영국 및 대만-EBRD 기술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았음
- 기존 보증을 통해 약 1만 건에 가까운 보험계약에서 5억 유로 이상의 재보험 보장이 제공됐으며, 현재까지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청구액을 상회해 MS Amlin이 EBRD 보증을 청구한 사례는 없음

○ 우크라이나 태양광 발전, 2026년 말까지 설비용량 2GW 추가 확대

전망, 자가소비형 소규모 설비 중심(10.12)

- 우크라이나 태양광에너지협회(ASEU)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만 약 1.1GW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신규 설치, 현재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9.4~9.7GW로 추산되며 연말까지 약 2GW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됨
- 신규 설치 설비의 약 80%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전력 판매보다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추세이며, 대규모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 중심에서 분산형 발전 및 에너지 자립형 설비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

ㅇ 독일, 우크라이나 교통지원기금에 1백만 유로 기여(10.14)

- 독일은 우크라이나 교통지원기금(Ukraine Transport Support Fund)에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스웨덴·노르웨이·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의 기여금을 포함한 기금의 총 지원 약정액은 410만 유로로 확대됨
- 주요 지원 대상은 기관차,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손된 교통 인프라 복구용 특수장비, EU 회원국과 연결되는 11개 도로 국경검문소의 전자 대기열 관리 시스템 등으로, 철도·도로·도시교통·항공·해운·내륙수로 등 교통 전 분야를 포괄
- 해당 기금은 2025년 우크라이나·리투아니아·스웨덴·캐나다가 국제교통포럼(ITF) 체계하에 설립했으며, 대규모 국제 재원 조달 프로그램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교통 분야의 긴급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목적

ㅇ 우크라이나 철강업체 가동 중단·철도 운행 감소로 전력 수요 급감, 전력망 수급 균형 관리에 어려움(10.14)

-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철강업체의 생산이 중단·축소되고 철도 운행도 감소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 발전 용량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전력망 균형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남
- 가동 중단·축소 사례로는 아르셀로미탈 크리비리흐(ArcelorMittal Kryvyi Rih), 자포리자스탈(Zaporizhstal) 및 크리비리흐 지역의 기타 생산시설이 있으며, 철도 운행 감소와 전기 견인 사용 축소도 전력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잉여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송전 가능량은 국경 간 송전선과 변전소의 상태에 좌우됨

ㅇ 미국·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구상 마련, 현 전선 동결 대가로 재건 지원·안보 보장·경제협력 추진(10.14)

- 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World Bank와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BlackRock)이 참여하는 재건 재원 조성 방안을 추진함. 협상단은 우크라에 구체적인 재건 비용 추산과 자금 유용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우크라는 수일 내 관련 수치를 제시할 예정
- ② 안보 보장: 우크라이나가 향후 러시아의 재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원하는 안보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NATO 조약 제5조를 모델로 검토 중, 러시아에도 유럽과 안보 우려를 다루는 별도 협정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미정
- ③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간 경제협력: 러시아산 저가 석유·가스의 유럽 공급 재개를 포함한 대규모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에너지 수송 및 판매 수익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대러 제재 해제의 절차와 일정도 협상안에 포함될 전망임
- ④ 영토 및 휴전선 문제: 현재 교전 접촉선을 기준으로 전선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함. 양측 모두 완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핵심 쟁점으로, 앞선 재건 지원·안보 보장·경제적 혜택을 양측의 타협을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임

ㅇ 우크라이나, 국유자산 민영화 절차 간소화 추진, 자산 이전 기한 20일로 제한해 재정수입 확대 도모(10.12)

- 우크라 의회는 10월 12일 국유자산 민영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의 1차 독회를 통과, 민영화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에 요구하는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이며, 법안 최종 채택 시 국가재산기금의 자산 매각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예산 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러시아 공습 여파로 우크라이나 창고 임대료 2배 상승(10.12)

-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내 물류창고 공급이 감소하면서 창고 임대료가 2026년 8월 이후 약 2배 상승
- 8월 초 월 ㎡당 3~5달러였던 임대료는 현재 최소 8달러 수준이며, 10달러가 일반적인 가격으로 형성, 키이우 지역에서는 ㎡당 12유로에 달하는 창고가 하루 만에 임대된 사례도 있음
- 창고 수요와 임대료는 향후 6~9개월 동안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000~3,000㎡ 규모의 창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의회, EU·IMF 지원금 확보 위한 세제·금융감독 개혁법안 통과(10.15)

- 우크라이나 의회는 10월 15일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소액 소포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 전자상거래 투명성 강화, 정치인 관련 금융 모니터링 규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
- 해외 소포에 대한 20% VAT는 2027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의회는 이를 통해 연간 200억~300억 흐리우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
- 관련 개혁은 IMF의 약 7억 달러 지원과 EU의 37억 유로 지원금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Ukrenergo,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키이우 드니프로강 송전철탑 복구 불가, 대체 기술 마련 추진(10.14)

- 우크라이나 국가전력망 운영사 Ukrenergo의 비탈리 자이첸코 이사회 의장은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키이우 드니프로강 횡단 구간의 송전철탑 1기가 절단되었으며, 기존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다고 밝힘
- 이번 공격은 드론을 활용해 송전철탑을 직접 파괴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력 인프라 위협으로 평가되며, Ukrenergo는 기존 설비 복구 대신 대체 기술을 통해 송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우크라 Svaliava, 15억 흐리우냐 규모 유리 생산공장 가동, 생산량 절반 EU 수출 추진(10.16)

- 우크라이나 서부 자카르파탸주 Svaliava의 Energy Group 산업단지에서 EDL Glass가 단열유리 생산을 시작, 총 투자액은 약 15억 흐리우냐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30만㎡ 규모로 생산량의 약 절반을 EU 회원국에 수출할 계획

○ 우크라이나 DTEK, 폴란드 배터리 에너지저장 프로젝트 2건 총 244MW 규모를 액티스(Actis)에 매각 추진(10.16)

-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DTEK의 유럽 재생에너지 개발 자회사 DRI가 폴란드 내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 2건을 국제 투자회사 액티스(Actis)에 매각하기로 합의
- 첫 번째 프로젝트는 폴란드 코지에니체(Kozienice)에 위치하며, 출력용량 112MW·저장용량 518MWh 규모로 건설 준비를 마친 상태로, 액티스가 해당 프로젝트를 인수했으며, 두 번째 프로젝트인 트셰비니아(Trzebinia) 사업은 출력용량 132MW·저장용량 623MWh 규모로, 설비 가동 이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
- 두 프로젝트는 2022년 폴란드 용량시장 경매에서 각각 17년간의 용량 계약을 확보했으며, 계약에 따른 지급은 2027년부터 시작, 물가상승률 반영 예정

○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Naftogaz), 지하 가스 비축량 160억㎥ 확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 기록(10.16)

- 우크라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가 지하 가스저장시설의 비축량을 160억㎥까지 확대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난방 시즌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최소 비축량 132억㎥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겨울철 가스 공급 안정성을 위한 여유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나프토가스의 세르히 페도렌코(Sergii Fedorenko) 대표대행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나프토가스 시설을 400회 이상 공격했으며, 이는 2025년의 약 2배에 해당, 석유·가스 생산 및 처리·수송 시설과 전선 인근 지역의 열병합·화력발전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으며, 회사는 주요 에너지 인프라의 방호를 강화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2026년 가스 소비량은 약 200억㎥로, 러시아의 산업시설

공격으로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산업용 가스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우크라이나는 가스 순수입국으로, 2015년 이후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등을 통해 유럽 판매자로부터 가스를 조달
- 약 300억㎥ 규모의 지하 가스저장 용량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EU에 자국 저장시설을 활용해 비축하도록 제안했으며, 전체 용량의 약 3분의 1을 EU의 가스 저장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 이는 우크라이나의 저장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유럽의 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 전 나프토가스 사장, 키이우 대형 열병합발전소 복구 중심의 겨울철 대비 전략 비판, 분산형 발전체계 구축 촉구(10.16)

- Andriy Kobolyev 전 나프토가스 사장은 10월 16일 라디오 NV 인터뷰에서 키이우의 겨울철 에너지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존 대형 열병합발전소(CHP) 복구에 집중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 특히 CHP-4·5·6 복구에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소규모 발전원을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대체 전력·열 공급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고 언급
- 코볼레우 전 사장은 러시아가 키이우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장기간 공격 목표로 삼아 왔으며, 대형 발전시설을 공습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 기존 소련식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만으로 광범위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

○ 우크라이나 OTP은행·유니솔라(Unisolar), 기업 대상 태양광 발전 설비 대출 프로그램 출시, 초기 7개월 연 0.01% 금리 적용(10.16)

- 우크라이나 OTP은행(OTP BANK)과 재생에너지 기업 유니솔라가 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
- 대출은 흐리우냐화로 제공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84개월(7년)으로, 최초 7개월 동안 연 0.01%의 금리를 적용하고, 8개월 차부터는 연 7%의 보상 금리가 적용됨

-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저렴한 대출 5-7-9%'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구매한 장비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음

○ 우크라 정부,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60백만 유로 차관 확보 추진, 서부 국경 인프라 확충(10.16)

- 우크라이나 내각이 서부 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인 'Ukraine Western Border Infrastructure' 추진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60백만 유로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 정부는 관련 차관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내용은 내각 결의 제1050-r호에 명시됨
- 우크라 재무부와 국가복구·인프라개발청(State Agency for Restor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에 차관 계약 체결을 위한 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 다만 제공된 기사에는 구체적인 자금 집행 일정과 세부 사업 대상, 공사 범위 등은 명시되지 않음
- 한편, 10월 8일 우크라 서부 빌라 체르크바(Bila Tserkva)와 루마니아 시게투 마르마치에이(Sighetu Marmaţiei)를 연결하는 신규 국경 통과 지점을 개통한 바 있으며, 서부 국경 인프라 개선이 진행되면서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연결 확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주, 2,200명 고용 목표 산업단지 조성(10.19)

- 우크라이나 정부는 흐멜니츠키주 셰페티우카에 들어설 '클루비우카 에코 파크(Klubivka Eco Park)'를 산업단지 등록부에 등재
- 산업단지는 56.49ha 규모로 조성되며, 운영 기간은 35년, 약 20억 50백만 흐리우냐 투자 예상

○ 우크라이나, 태양광 발전·에너지저장 설비 지원 입찰 개편(10.16)

- 우크라이나는 신규 태양광발전소(SPP)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지원 할당량 입찰을 실시해 약 140MW의 추가 발전 용량 확보를 추진함
- 기존에는 시장가격이 입찰가격보다 낮을 경우 국영기업 'Guaranteed Buyer'가 차액을 보전하고, 입찰가격을 초과하는 수익은 국영기업에

반환해야 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시장가격이 낮을 때 보전받으면서도 초과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변경됨

- 특히 ESS 연계 태양광 설비에 별도 할당량을 도입하고, 최대 지원 프리미엄을 kWh당 0.12유로로 설정, ESS 연계 입찰에는 24개 업체가 참여해 총 385.94MW를 제안하며, 할당량 100MW의 약 3.9배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남
- 입찰 참여를 위한 보증금 조건도 완화돼 발전용량 1MW당 5,000유로로 낮아졌으며, 낙찰 기업은 계약 체결 후 18개월 이내에 설비를 건설하고 가동해야 함

○ 스위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8건에 163.6백만 달러 지원 승인(10.20)

-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10월 초 우크라 재건지원을 위한 기업 프로젝트 8건에 총 135백만 스위스프랑(약 2,165억원)의 자금 지원을 승인
- 지원 분야는 에너지, 대중교통, 상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며, 우크라와 공동으로 진행한 경쟁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 참여 기업은 사업비의 최소 10%를 자체 자금으로 부담해야 함
- 이번 지원은 민간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확대하려는 스위스의 중장기 협력 전략의 일환

○ UNDP·덴마크, 2027년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지역 재건에 223.4백만 달러 투입 계획(10.20)

- 유엔개발계획(UNDP)은 덴마크 정부와의 협력 아래 2027년 우크라 미콜라이우(Mykolaiv) 지역의 복구·개발 사업에 223.4백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
- 이번 지원은 총사업비 359백만 달러 규모의 'Strategic Partnership for Mykolaiv'의 일환으로, 미콜라이우 시의회가 연례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함
- 주요 사업은 사회·행정 인프라 복구, 의료시설 지원,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 기업 활성화 등으로 구성됨
- 양측은 이미 미콜라이우 상황센터(Situation Center)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긴급 대응 조정을 위한 최신 IT 인프라를 구축, 시범사업으로는 시립 학생창의궁전(Palace of Student Creativity) 재건이 추진되며, 해당 사업에 21만 달러가 배정됨

ㅇ 헝가리, 우크라이나·몰도바 EU 가입협상 추가 진전 차단(10.20)

- 헝가리는 10월 20일 진행된 EU 회원국 기술 전문가 회의에서 우크라와 몰도바의 EU 가입협상 관련 마지막 2개 협상그룹 개시를 위한 절차적 합의에 반대

ㅇ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추가 지원 불가 입장 표명(10.20)

-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300기를 요청했으나, 폴란드는 자국 비축분 부족으로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밝힘
-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이후 요격미사일 수급난이 심화됐으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량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서방의 미사일 보유량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 이에 충분한 재고를 보유한 NATO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함
-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비해 도시와 전력·난방 인프라를 방어할 요격미사일 300기를 EU에 요청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별로 수개월마다 2~4기씩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
- 유럽 주요국도 지원 여력이 제한된 상황, 네덜란드는 7월 자국 비축분을 통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나, NATO의 우크라이나 우선지원요구목록(PURL) 사업 등을 통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재정적으로 지원, 독일과 노르웨이도 방공 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고와 자국 방위 수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ㅇ 일론 머스크,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통신 속도 제한 지시, 드론 작전 및 방공 대응 차질(10.21)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군사용 스타링크 서비스의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고 보도, 10월 14일

적용된 제한으로 일부 우크라이나군 공격·요격 드론의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전해짐

- 스타링크 제한 결정의 책임 소재를 두고 미국 행정부 내 설명이 엇갈림, 머스크는 X를 통해 미군과 대통령이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주체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관련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함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폴란드 PZU의 메트라이프 우크라이나 생명보험사 인수 승인, 2027년 1분기 거래 완료 목표(10.20)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는 폴란드 금융그룹 PZU의 생명보험 시장 선두기업 메트라이프 우크라이나(MetLife PJSC) 지분 100% 인수를 승인함
- PZU는 2026년 5월 스위스 소재 MetLife Global Holding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보도에서는 약 90백만~135백만 달러로 추정
- 메트라이프 우크라이나는 현지 생명보험 시장의 약 49%를 점유, 약 9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PZU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3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명보험 시장 내 비중은 낮아, 이번 인수를 통해 현지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우크라이나·유럽투자은행(EIB), 우크레네르고 변전소 복원력 강화에 최대 275백만 유로 투자 검토(10.20)

- 슈미할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과 카를 네하머 EIB 부총재는 키이우에서 회동, 우크라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및 신규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
- 핵심 사업은 우 국영 송전망 운영사 Ukrenergo에 최대 275백만 유로를 투자해 핵심 변전소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혀졌으나, 구체적인 투자 집행 일정과 세부 사업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 EU, 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추가 700억 유로 확보 추진, 불가리아 불참 선언(10.22)

- EU는 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추가로 700억 유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에도 분담금 확대를 요청할 계획임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정상회의에서 2027년 우크라의 국방 및 재정 수요가 약 1,5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추가 지원금은 무기 구매와 드론 생산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임
- 기존 EU의 900억 유로 대출 지원책은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재정·군사적 수요 중 약 3분의 2를 충당하도록 설계됐으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공격 강화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짐
- EU 집행부는 추가 공동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과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는 자산 활용 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EU는 10월 29~30일 캐나다와의 정상회의 및 11월 20일 영국과의 회의를 통해 추가 분담금 확보를 추진할 계획, 다만 불가리아가 신규 지원 구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지원 규모와 조달 방식에 대한 EU 회원국 간 합의 및 역외 파트너들의 참여 여부가 재원 확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Vodafone 우크라이나, 기지국 태양광 발전 확대하며 통신망 전력 자립성 강화(10.20)

- Vodafone 우크라이나는 통신망의 에너지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사업 2단계에 착수
-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지국 400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 설치해 사업 대상지를 기존 100곳에서 총 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2단계 사업 규모는 1단계의 4배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장시간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
- 태양광 설비는 주간에 기지국 전력 수요 일부를 충당해 외부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전 시 통신 장비 가동에 필요한 배터리 잔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1단계 사업은 우크라이나 14개 지역의 기지국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하계 기간에 11만kWh 이상의 전력을 생산, 회사는 해당 설비가 대상 기지국 전력 소비량의 약 30%를 충당하고, 연간 약 380MWh의 발전량과 약 21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함

□ 주요 프로젝트 동향

1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ㅇ **(주요동향)** '26년 하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구조조정(안) 심의 결과 도출 예정이며, 합의내용 중 현금변제(→KIND, EUR 7.5백만) 입금완료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KIND, 베올리아, BHI
- (**사 업 비**) USD 5.04억
- (**사업기간**) 2026.12.~2054.12. (건설 37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12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12월 COD

ㅇ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S건설, Cordia, KIND
- (**사 업 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2,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id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26. 6월 이사회 승인(법인설립)

○ **(주요동향)** '26년 6월 이사회 승인(자회사 설립)
'26년 10월初 투자계약 체결(KIND↔ZEIT)
'26년 10월中 법인인수(설립)
'26년 10월末 SPA 체결(KIND PL↔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 업 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2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준공식* 개최(9.9)

* KIND, LX판토스, 해진공 참석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 ㈜아이티코어스, ㈜영국씨앤피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LOI 체결(4.28)
  '26. 6월 MOU 체결(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
  '26.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8.4.)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완료(9.6.~9.12.)
  '26.11월 현지 ITS 실증 출장 예정
  '26.12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ㅇ **(주요동향)** 루블린 공무원 대상 국내 초청연수 완료(9.6.~9.12.)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KCN 사업대상지 방문 예정(10.22.)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10.2. (232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4.27., 화상회의)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URC 폴란드 행사참여(6. 22.~6. 28.)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7. 19.~7. 25.)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9.15, 화상회의)

ㅇ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5~26)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7.19.~7.25), 최종보고회(9.15)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완료)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완료)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재건 (완료)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Pre-F/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재건 (추진중)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확장FS : 국토부 지원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추진중)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기술자문) • KSP 사업 발주 예정 (KOTRA/'26년 下)
철도 노선 고속화 등 (추진중)	•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 보고회 개최('26.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 과업기간 연장* 예정 (당초) '27.12월→(변경) '29.8월